CEO Information

2008.1.9. (제637호)

2008년 해외 10大 트렌드

목차

1. 美國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2. EU의 정치적 통합 심화(리스본조약 비준)
3. 해결 기미가 없는 중동 정세
4.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의 퇴조
5. 세계경제의 버팀목 : 중국경제
6. 달러貨 약세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7. 국부펀드의 영향력 증대
8. IT경기의 회복세 지연
9. 그린경제(Green Economy)의 확산
10.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소비자 파워

작성 : 김득갑 수석연구원(3780-8034)
deukab@seri.org
정호성, 정동영, 김현진, 박현수, 방태섭 외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 요 약 》

2008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리스크 증대', '다극화'와 '新사업 기회'로 요약된다. 미국의 정치력 약화로 중동불안은 지속되는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다. 미국 일변도이던 국제질서는 미국, EU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다극화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비자 파워가 급부상하면서 대응하기에 따라 新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2008년 해외 10大 트렌드는 ① **美國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② **EU의 정치적 통합 심화(리스본조약 비준)**, ③ **해결기미가 없는 중동정세**, ④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의 퇴조**, ⑤ **세계경제의 버팀목: 중국경제**, ⑥ **달러貨 약세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⑦ **국부펀드의 영향력 증대**, ⑧ **IT경기의 회복세 지연**, ⑨ **그린경제(Green Economy)의 확산**과 ⑩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소비자 파워** 등이다.

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2008년 11월 美 대선 및 의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주의 색채가 더 강화되고, 외교정책은 일방주의에서 多者主義로 전환될 전망이다. ② EU는 2008년말까지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헌법으로 자리매김 할 리스본조약을 비준해 정치통합에 속도를 낼 것이다. 同 조약의 발효시 EU는 유럽합중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③ 중동 정세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여타국들의 경제제재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다.

④ 지난 5년간 '高성장-低물가'를 향유해 온 세계경제는 '低성장-高물가'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진국들의 공조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신용경색의 장기화와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골디락스 경제의 퇴조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⑤ 중국경제는 10%대의 고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⑥ 미국의 경기둔화와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 기조를 지속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주가 하락과 자산가격 조정 등의 금융불안이 반복될 것이다. ⑦ 약 3조달러에 이르는 중동 산유국과 아시아의 국부펀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등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이를 견제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다.

⑧ 선진국의 IT관련 지출 증가세 둔화와 주요 IT제품의 성숙기 진입 등으로 세계 IT산업의 회복세는 다소 지연되겠지만, 베이징올림픽 특수 등 신흥시장에서의 사업기회는 클 것이다. ⑨ '발리 로드맵' 채택을 계기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주요국들도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⑩ 일반 네티즌이 제작한 동영상과 블로그 등의 급증으로 온라인을 창구로 한 소비자 파워가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선진기업일수록 소비자와 연결이 가능한 마케팅 채널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추세이다.

《 2007년 해외 트렌드 예측에 대한 평가 》

□ 당 연구소가 예측했던 2007년 해외 10大 트렌드는 실제 상황과 대체로 일치

-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으며, 기존 核 질서에 대한 위협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다소 완화

2007년 해외 10大 트렌드와 실제 상황

구분	트렌드 예측	2007년 실제 상황	평가
국제 질서 · 경제	기존 核 질서에 대한 위협 가중	- 이란 핵개발 지속 - 북한 핵문제는 확산보다는 동결	△
	세계 3大 경제권의 脫동조화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 아시아 및 유럽권 경제 호조	○
	WTO체제 불안과 지역주의 확산	- FTA 체결 증가	○
	과잉 유동성 축소와 달러화 약세	- 미국發 신용위기 확산 - 달러화가치 1975년 이후 최저	△
산업 · 경영	기업에 대한 정부간 규제 공조	- 카르텔 적발을 위한 공조 지속 - 환경규제 및 반독점 규제 강화	○
	M&A와 글로벌 산업재편	- M&A 실적 사상 최고치 기록 -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신흥국가 부상	○
	다국적기업의 'China+1' 전략 본격화	- 인도 및 베트남의 FDI 유입 증가	○
	개방형 기술혁신 확산	- 기술보호주의 경향으로 기술중개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미흡	△
	글로벌 탤런트 확보경쟁 심화	- 점진적으로 진행	△
	글로벌 新소비계층의 부상	- 개도국의 중산층 증가	○

주 : ○는 전망과 실제상황 일치, △는 일치했으나 정도에 차이, ×는 불일치

《 2008년 해외 10大 트렌드 》

□ 2008년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이 시험받는 한 해가 될 듯

- 서브프라임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고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도 EU, 중국과 러시아 등 여타 강대국의 도전에 직면

□ 2008년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리스크 증대', '다극화'와 '新사업 기회'

- 미국의 정치력 약화로 중동 불안은 지속되는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증폭

- 미국 일변도이던 국제질서가 미국, EU,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다극화 체제로 변화(Multi-Polar System)

-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비자 파워가 급부상하면서 대응하기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

2008년 해외 10大 트렌드

	리스크 증대	다극화	신사업 기회
국제 정치	3. 해결 기미가 없는 중동 정세	1.美國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2. EU 의 정치적 통합 심화 (리스본조약 비준)	
경 제	4.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의 퇴조 6. 달러貨 약세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5. 세계경제의 버팀목 : 중국경제 7. 국부펀드의 영향력 증대	
산업·경영			8. IT경기의 회복세 지연 9. 그린경제(Green Economy)의 확산 10.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소비자 파워

1. 美國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진입

□ 2008년 11월 실시될 美 대선 및 의원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국제질서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시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상호주의 무역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자유주의 무역, 군사력 중시와 국익에 기초한 선별적 개입이나 고립주의를 지향

미국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

▷ 민주당 힐러리와 오바마는 이라크 파견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외교적 노력을 통한 이란 핵개발 저지를 주장하고, 2010년까지 감세 확대안을 반대하며 대중무역적자 등에서는 비판적

▷ 공화당의 허커비, 메케인과 줄리아니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 지속, 불법이민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감세정책 등을 지지

□ 민주, 공화 양당은 예비선거를 거친 후 2008년 8~9월 대선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

- 현재 대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민주당 힐러리 의원이 다소 앞서는 가운데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를 뒤쫓는 양상

  · RASMUSSEN REPORTS 여론조사 결과(2008.1.4~7) : 민주당(힐러리 33% > 오바마 29%), 공화당(허커비 20% > 메케인 19% > 줄리아니 17%)

- 하원 435명(전원)과 상원 34명을 선출하는 第111대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衆論

  · 하원의 경우 *Congressional Quarterly*[1]는 민주당 우세 231석, 공화당 우세 194석 및 백중세 10석으로 예상

[1] 의회 및 정치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미국 언론사이며 2008년 1월 2일자 기사

'보호주의(통상정책)' 및 '多者主義(외교정책)'의 대두 가능성

□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던 미국의 통상정책은 향후 상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2)]

- 민주당의 경우 전통 지지계층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3)] 프로그램 활성화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외교정책은 일방주의 노선이 점차 퇴조하고 多者主義로 전환될 전망

- 테러와의 전쟁 등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적 하드 리더십'에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소프트 리더십'으로 전환
  - 北核문제의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核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지지하는 분위기

□ 대외정책의 기조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점하는 미국의 위상은 약화되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여타 강대국의 도전도 지속될 듯

- 對테러 전쟁 이후 형성되었던 미국 주도의 親美 질서가 점차 약화
  - 미국 單極체제를 지탱했던 '미국-일본-호주'의 연결고리도 일본과 호주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점차 약화될 전망

-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강화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제동이 걸리고 정치통합에 나선 유럽연합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가능성

2) 한미 FTA는 일부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6월 이후 비준 동의될 가능성
3)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EU의 정치적 통합 심화(리스본조약 비준)

'리스본조약 비준'이 정치통합의 기폭제로 작용

□ EU는 2008년말까지 리스본조약[4]을 비준해 정치통합에 속도를 낼 전망

- 최근 3년간 회원국數가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난 EU는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리스본조약은 2005년 실시된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조약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유럽연합의 헌법[5]으로 자리매김

'리스본조약'의 주요 내용

▷ 리스본조약의 핵심은 경제 및 정치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EU체제를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상당 부분을 EU로 이양하는 것

▷ 단순한 국가연합체에서 벗어나 단일 국가처럼 국제협약의 체결 주체로서 EU의 법적 실체를 인정(EU에 法人格 부여)

- EU 대통령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임기 2.5년, 1회 연임 가능)과 외무 전담 대표직(임기 5년)을 신설

- 유럽의회는 회원국 국민이 아닌 '유럽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격상되고, EU 법률은 회원국의 채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에게 적용

▷ 장관급 회의인 각료이사회의 결정방식을 2014년부터 회원국 수와 인구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는 二重다수결(Double Majority)로 전환

- 특히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만장일치제를 적용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40여개 분야를 가중다수결제로 전환하여 회원국차원의 거부권을 제한

[4] 2007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담에서 EU헌법조약 대신 개혁조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12월 13~14일 리스본정상회담에서 개혁조약을 리스본조약(Lisbon Treaty)으로 명명하고 최종 승인

[5] EU헌법조약에서 논란이 되었던 '헌법'과 '헌법조약'의 용어나 國歌와 國旗 등 EU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

□ 리스본조약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부터는 발효될 전망

- EU의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리스본조약은 늦어도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2009년 6월까지는 반드시 발효되어야 함

  · 동 조약은 최종 비준이 이루어진 시점의 익월 1일에 발효

- 다만 일부 국가에서 비준이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민투표에서의 통과여부가 관건

  · 대다수 회원국은 의회 표결을 통해 비준을 할 것이 유력시되나, 영국, 덴마크, 체코 및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도 큰 편

진일보한 정치통합체로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확대

□ 리스본조약 발효時 EU는 보다 진일보한 정치통합체로 발전

- EU에 대한 法人格 부여, 국가주권의 이양 확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및 외무전담대표[6]의 신설 등은 '유럽합중국'의 토대를 마련

- 향후 경제통합도 금융 및 서비스시장은 물론 노동과 세제 등 민감한 분야까지 확대되는 등 보다 진일보할 전망

□ 명실공히 27개국을 대표하는 국제협약의 체결 주체로 거듭나는 EU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의 위상에 걸맞게 환경문제, 최빈국 지원, 직접투자와 국제표준 제정 등의 국제적 이슈를 선도

[6] 현재의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현재 Javier Solana 담당)과 EU집행위의 대외관계 집행위원직(현재 Benita Ferrero-Waldner 담당)의 업무를 통합하여 대표성과 외교자원의 집중을 도모

3. 해결 기미가 없는 중동 정세

중동문제를 둘러 싼 미국의 리더십 약화

□ 2008년 중동정세는 군사적 충돌과 같은 위기 발생의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문제해결의 돌파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레임덕에 접어든 부시 행정부가 중동문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듯

  · 프랑스, 영국과 독일 등은 美國의 新행정부와의 정책협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주력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 지도자는 2008년 중 해묵은 영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선언[7]했으나 가자지구 분쟁 등은 지속될 가능성

  · 가자지구는 서방측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하마스에 의해 통제

□ 이라크 치안유지와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전망

- 2008년 중 미국의 이라크 철군 가능성은 낮고, 단계적 철군에 착수한 영국의 성공 여부도 미국의 철군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

  · 영국은 2008년 봄까지 4,700명의 병력을 2,500명으로 줄일 계획이나, 성공 여부는 남부 바스라 지역의 치안유지권을 넘겨받은 이라크 당국의 성과에 좌우

- 이란은 UN안보리의 거듭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지속할 전망

  · 러시아와 중국은 對이란 경제제재에 비협조적이며, G8 국가들의 경제제재 실행의지도 미약한 상태

[7] 2007년 11월 27일 미국 애나폴리스(Annapolis) 회담

4. 골디락스(Goldilocks)[8] 경제의 퇴조

5년 장기호황의 마감

□ 지난 5년간 '高성장-低물가'를 향유해 온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低성장-高물가' 국면에 진입

- 서브프라임 사태의 장기화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가중

  · 소맥, 대두 및 옥수수 등 주요 곡물가격은 수급 불균형과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2008년에도 두 자리수 상승세가 예상

세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E)
세계경제성장	2.6	3.9	3.3	3.8	3.5	3.3
(미국)	(2.5)	(3.6)	(3.1)	(2.9)	(1.9)	(1.9)
(유로지역)	(0.8)	(2.0)	(1.5)	(2.8)	(2.5)	(2.1)
세계 소비자물가	3.5	3.6	3.7	3.6	3.9	-
(1차산품 가격)	10.3	22.5	33.9	14.0	33.7	-

주: 1. 각국 및 세계 경제성장률은 시장환율 기준
2. 1차 산품은 곡물, 에너지연료와 산업용 원자재 등을 포함하며, 연말 기준 상승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10. ;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2007.12.

□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제기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펠드스타인 하버드大 교수는 2008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50%로 예상[9]

[8]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마리'에서 유래한 용어로 高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의미

[9] Martin Feldstein, "How to Avert Rec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07.12.5.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의문시

□ 미국과 유럽국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금리인하나 동결 기조를 유지할 전망

- 美 FRB는 2007년 8월 이후 정책금리를 1%p 인하하고,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 유럽중앙은행(ECB)도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영란은행도 2007년 12월 2년 4개월만에 금융완화기조로 전환

□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한 공조도 본격화될 전망

- 2007년 12월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신용경색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

  · 美 FRB와 ECB 및 스위스중앙은행은 24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한도를 설정[10]함으로써 달러貨의 유동성 확대에 합의

□ 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 경제의 퇴조를 막기에는 역부족

- 부실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다 금융시장의 중개기능도 위축되어 유동성 공급만으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

- 인플레이션 위험도 병존하고 있어 금리인하 폭도 제한적

  · "금융불안과 高유가 등으로 세계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더 하락할 위험이 있고, 특히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의 장기화로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예상" (IMF부총재 John Lipsky)[11]

[10]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금흐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美 연준이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역외 단기금융시장의 달러화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

[11] IMF, *IMF Survey Online Magazine*, 2007.12.11.

5. 세계경제의 버팀목 : 중국경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 중국경제는 2008년에도 10.7%에 달하는 高度성장을 지속할 전망

- 지난 30여년간 성장우선 경제정책을 견지해왔던 중국은 2008년에도 고용창출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여전히 高度성장이 절실

  · 후진타오(胡錦濤) 2기 지도부가 제시한 '2008년 8大 경제과제'[12]의 第1 과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유지'

- 투자와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이징올림픽 특수 등에 따른 소비확대도 高度성장에 일조[13]

□ 세계경제 성장기여율에 있어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국(2위)과의 격차도 확대될 전망(기여율 : 중국 18.6%, 미국 14.6%)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5%로 전망(전년 대비 0.4%p 확대)

  · 반면 미국의 비중은 25.0%로 전년 대비 0.9%p 하락

주요국의 세계경제내 성장기여율과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중국		미국		독일	
	성장기여율	비중	성장기여율	비중	성장기여율	비중
2006년	13.5	5.5	23.0	27.5	4.8	6.0
2007년	16.6	6.1	14.5	25.9	3.9	6.1
2008년(E)	18.6	6.5	14.6	25.0	3.7	6.0

주: 국가별 성장 기여율(%) = (각 국가의 성장 증가분/세계경제의 성장 증가분)×1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2] 여타 8대 과제는 농촌경제 발전, 산업고도화, 에너지 절감, 지역간 협력발전, 민생개선 등
[13] 2007년 1~9월 소비 증가율은 15.8%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37.0%로 수출(21.4%)을 압도

세계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확대

□ 소득수준 향상, 도시화의 진전 및 올림픽 特需 등에 힘입어 중국은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 점차 변화

-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08년에 사상 최초로 10조위안(약 1조 4천억 달러)을 돌파할 전망

- 자동차, 평판TV 등 고급 내구소비재가 전체 소비증가세를 견인

  · 2004년 500만대를 돌파했던 자동차 소비는 불과 4년 만인 2008년에는 1,000만대를 상회할 전망

베이징올림픽 特需

▷ 디지털 중계방송 실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모바일방송 등으로 평판TV 및 휴대폰 등이 올림픽 特需를 누릴 전망

- 평판TV시장은 2007년 800만대에서 2008년에는 1,2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그 중 40" 이상 大화면 비중이 40%에 이를 전망 (구매 예정자의 53.3%가 올림픽 중계 시청이 목적)

- 휴대폰 시장도 2007년 1억 5,000만대에서 2008년 2억대 규모로 확대

(자료 : 중국전자상회, 중국정보산업부)

□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한 중국의 수입확대 정책과 위안貨 평가절상 추세도 각국의 경제성장에 일조

- 2007년 11월 처음으로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14]을 발표했으며 12월에는 스포츠용품 등 62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

[14] 장비제조, 환경·에너지관련 업종, 생명과학 등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지원을 제공

6. 달러貨 약세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

달러貨 약세 지속

□ 서브프라임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미국경기 둔화 및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貨 약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은 빨라도 2008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대

  ·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80% 이상이 대출 2~3년 후인 2007~08년에 금리재조정이 발생

- 신용경색 및 경기둔화를 우려한 정책당국도 금리인하를 재차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주요 투자은행들은 현재 4.25%인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2008년말 3.56%(전망치 평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15]

□ 2008년 주요 통화의 對달러貨 절상률은 연평균 4~7%로 예상

- 유로貨 : 오일머니 및 아시아 자본의 유로화 선호 현상으로 인해 연평균 4.4% 절상

- 엔貨 : 위험자산 회피, 美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6.9% 절상

- 위안貨 : 미국의 압력과 함께 중국 내부의 필요성[16]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6.6% 절상

[15] 국제금융센터, "주요투자은행 금리전망", 2007.12.31.
[16] 중국정부가 경기과열 및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위안貨 절상을 용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 지속

□ 美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주가하락 및 환율 급변 등 금융불안이 반복될 전망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세계 금융불안 현상[17]

구분	2007년 2월 26일~3월 5일	7월 23일~8월 17일	10월 31일~11월 23일
촉발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현재화	MBS와 CDO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유동화자산 부실이 확대	MBS와 CDO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한 SIV의 유동성 위기
신흥시장의 주가 변동률	-10.2%	-17.6%	-11.3%
엔/달러환율	120.7 → 115.3	121.1 → 114.2	115.3 → 108.3

□ 지난 4~5년간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급등했었던 자산가격도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이 세계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음

  · 2007년 10월 미국 주택가격[18]은 고점(2006년 7월) 대비 6.6% 하락

- 위험자산 회피 현상의 확산으로 과열양상을 보여 온 신흥 주식시장[19]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20]에 따른 금융긴축이 겹치면서 유동성에 기초한 주가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17] MBS는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CDO는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IV는 구조화투자회사(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18] S&P/Case-Shiller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기준

[19] 2003년 3월 11일 대비 2007년 말 신흥 주식시장은 361.8%의 주가상승을 기록

[20]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식료품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6%를 넘어섰고, 미국은 금리인하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3%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7. 국부펀드의 영향력 증대

국부펀드가 금융시장의 핵으로 부상

□ 정부가 조성한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삼아 운용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는 2007년 6월말 현재 30여개국에서 총 2조 9,000억달러 규모로 운용 중

- 산유국 오일머니와 아시아 신흥국의 잉여외환자금[21]이 늘면서 급성장

주요 국부펀드의 규모와 특성

(단위: 억달러)

석유/원자재 상품펀드(Commodity Fund)			非상품펀드(Non-Commodity Fund)		
국부펀드(설립연도)	특성	규모	국부펀드(설립연도)	특성	규모
아브다비투자청(1976년)	○	8,750	싱가포르투자청(1981년)	△	2,150
쿠웨이트투자공사(1953년)	○	1,740	중국투자공사(2007년)	△	2,000
러시아안정화기금(2004년)	○	1,220	싱가포르 테마섹(1974년)	△	1,080
카타르투자청(2005년)	△	500	홍콩Investment Portfolio(1998년)	○	1,000

주: ○는 펀드투자전략이 포트폴리오 안정투자, △는 전략적 위험투자 성향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07.9. ; 한국은행 등

□ 美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 외환운용에서 탈피해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등 공격적인 투자로 운용방식이 점차 다변화

- 사모펀드에도 투자하면서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

  · 2007년 6월 중국투자공사는 미국系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 투자

-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美 금융기관들의 구원투수 역할로서 주목

  · 아브다비 투자청의 **시티뱅크** 투자(75억달러) 및 중국투자공사의 **모건스탠리** 투자(50억달러) 등이 대표적인 사례

[21] 향후 1년내 지급해야 하는 대외부채 원리금 등을 토대로 구한 적정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부펀드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

□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국부펀드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와 신흥국가의 수출확대 등으로 국부펀드는 더욱 규모가 커질 전망

  · 국부펀드의 규모는 매년 약 9,000억달러씩 증가함으로써 2015년에는 약 11.9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22)]

- 선진 금융기관의 CEO 영입과 새로운 투자분석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분야 진출에도 적극적

□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자, 선진국들은 국부펀드의 자금출처 및 운용방식의 불투명성과 투자에 정치논리 개입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견제를 본격화할 전망

- 2007년 10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IMF와 세계은행이 국부펀드의 구조, 신뢰도 및 투명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제기

  · 매코믹 美 재무성 차관은 국부펀드가 항만 등 국가 인프라를 인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23)]

- 특정 국부펀드의 투자를 규제하거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대두[24)]

  · 2007년 7월 미국 양원은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전보장법(FINSA)을 통해 외국정부가 개입된 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

[22)] Morgan Stanley Research Global, "How Big could Sovereign Wealth Funds Be by 2015?", 2007.5.
[23)] 2007년 11월 14일 美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의 공청회(http://www.treasury.gov/press)
[24)] 2005년 중국 해양석유유한공사에 의한 미국 유노칼의 매수 시도를 의회가 반대한 것이 계기

8. IT경기의 회복세 지연

주요 IT 제품의 성숙기 진입으로 성장률 감소

□ 선진국의 IT 관련 지출 증가세 둔화 및 주요 제품의 성숙기 진입 등으로 인해 2008년 세계 IT산업 성장률은 6.6%로 전년(7.5%)보다 둔화[25]될 전망

- 미국의 IT지출 증가율 : 2007년 6.1% → 2008년 5.7%[26]

- 주요 IT기기(특히 휴대폰)의 2008년 수요증가율도 전년대비 1~4%p 감소

  · 보급률(2004년)[27] : 휴대폰 48.7%(24個國, 90% 이상), PC 63%(G7)

  · 다만, TV는 베이징올림픽 特需와 평판TV 수요 증가로, PC는 노트북 및 신흥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성장률 감소폭이 휴대폰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

주요 IT기기의 수요 전망

(단위: 백만대,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PC		230	(9.6)	257	(11.8)	285	(10.8)
	신흥시장	104	(19.2)	122	(17.6)	141	(16.1)
	노트북 PC	82	(27.1)	103	(26.5)	128	(23.6)
TV		189	(3.9)	199	(5.0)	206	(3.6)
	신흥시장	106	(0.7)	111	(4.3)	116	(4.2)
	평판TV	53	(101.3)	85	(59.9)	108	(28.0)
휴대폰		998	(19.8)	1,123	(12.4)	1,211	(7.9)
	신흥시장	626	(28.5)	731	(16.7)	814	(11.4)
	3세대	440	(58.8)	703	(59.7)	980	(39.5)

주: 1.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2. 신흥시장은 Asia Pacific(일본 제외), 남미, 중동과 동유럽을 포함
자료: Strategic Analytics(휴대폰, 삼성 Tech Forum(2007.11)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PC 및 TV)

[25]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의회(JEITA), 2007.12.20.
[26] Gartner, 2007.12.(무역협회, "美, 2008년 IT산업전망 및 주요 5가지 동향", 2007.12에서 재인용)
[27]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06.10.

반도체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고 디스플레이 성장세는 약화

□ 2007년에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08년에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

- 다만,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초과공급 상황이 해소되어, 수급상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

  · 특히, 가격하락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된 D램 업계의 경우 투자가 전년대비 13.6% 감소할 것으로 예상[28)]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메모리		585	20.5	598	2.3	626	4.6
	D램	338	32.0	325	-3.9	297	-8.5
	낸드플래시	115	8.7	152	32.3	205	34.8

자료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2007. 10(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리콘위크』, 2007.11.19에서 재인용)

□ 디스플레이 시장도 패널 수요의 증가세 둔화로 2007년 20%대에서 2008년 10%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약화될 전망

- 다만, 19" 이상 모니터와 50" 이상 TV 등 대형·고가 패널의 수요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

10인치 이상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단위: 백만대, 억달러,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패널 수요(백만대)	295	30.9	386	30.7	448	15.9
패널 시장(억달러)	608	21.2	734	20.7	834	13.5

주: TV·노트북·모니터·기타 용도의 LCD·PDP·OLED 포함

28)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리콘위크』, 2007.12.24.

9. 그린경제(Green Economy)의 확산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본격화

□ '발리 로드맵'에 의한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과 미국이 제안한 '기후변화 15개국 회의'를 중심으로 2008년 중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본격화

- 2007년 12월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2개국)이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규제 체제인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 참여하기로 합의

- 미국은 EU가 주도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에 맞서 기술개발 및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15개국 회의'를 추진 중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논의

구분	교토의정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15개국 회의
대상 기간	2008~2012년	2012년 이후	2012년 이후
주도 국가	EU	EU	미국
감축의무대상국	38개 선진국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192개국)	온실가스 多배출 15개국
한국 포함여부	미포함	포함	포함
감축의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 논의	개별국가의 자발적 감축 목표 상정

□ 교토의정서 의무이행이 2008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자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

- EU의 경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고 있으나, 최근 2020년까지 20%를 자발적으로 추가 감축하기로 합의

-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 줄여야 하지만, 최근 배출량은 오히려 6% 이상 늘어 高강도 저감 대책을 실시할 방침

  · 업종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

-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대체연료와 高연비 자동차 개발을 위한 기초 법안 준비에 착수한 상태

기업의 환경 · 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多소비 기업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관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막대한 신규 사업기회도 제공

- EU 주요 기업의 약 50%는 이미 경영활동에서 CO_2배출을 비용으로 산정[29]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GDP의 1% 이상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이 때문에 거대시장이 출현한다는 것이 중론[30]

  · 2006~10년간 탄소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9.4%로 전망(World Bank)

□ 대체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분야의 기업투자도 확대

- 1990년대말 '닷컴투자' 열풍에 이어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왓컴(watt.com)투자' 열풍이 확산

  · 2000년에는 美 벤처캐피탈의 대체에너지 투자는 1%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0%로 급증

- 구글도 대체에너지를 新사업으로 지정하고 '석탄보다 저렴한 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2008년에만 2,000만달러를 투자할 방침

[29] 2005년 300個 기업 대상 EU집행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30] N. Ster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7.1.

10.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소비자 파워

□ 사회적 지위, 학력,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온라인을 창구로 개인의 힘이 집단화·공식화

- 세계적인 UCC 열풍 속에 일반 네티즌이 제작한 동영상, 블로그 등이 급증

  · 최근 2년간 전 세계 블로그 수는 16배나 증가했으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는 2년 만에 1억件의 동영상이 게시

-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각 분야에 관한 네티즌 평가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온·오프 라인 전반에 걸쳐 공신력을 발휘

  · 2007년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 히트상품이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 확산되었고, 네티즌 투표를 활용한 '스타 캐스팅', '네티즌 청원 투표'와 '부당요구에 대한 집단요구' 사례 등도 증가

□ 글로벌 선진기업일수록 소비자와 연결이 가능한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

- 최근 5년간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글로벌 25大 기업들의 경우 전통 매체 광고비는 2006년에 총 7.7억달러 삭감한 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도 4.4억달러를 삭감(TNS 미디어 인텔리전스)

- 노키아(컨텐츠 검색기능 추가), P&G(인터넷 드라마), 나이키(온라인 커뮤니티 업그레이드) 등 선진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한 이지웹(Easy Web)[31] 구현을 全社 차원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기 시작 CEO

[31] 단순한 기능과 손쉬운 사용법 등 최근 웹서비스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터넷 기술을 잘 모르는 이용자도 손쉽게 인터넷에 글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특징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31	1. 2	1. 3	1. 4	1. 7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	936.9	936.6	938.5	940.5
	엔/달러(뉴욕시장)	112.58	111.93	109.74	109.57	108.66
금리	회사채(3년AA-, %)	6.77	6.91	6.92	6.91	6.91
	국고채(3년, %)	5.74	5.86	5.86	5.83	5.82
주가지수(KOSPI, 종가)		-	1,853.45	1,852.73	1,863.90	1,831.14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6.12월	2007.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1]	4.2	5.0	..	..	..	..	..
민간소비	3.6	4.2	..	..	..	..	..
설비투자	5.7	7.6	..	..	..	..	..
산업생산 증가율	6.3	10.1	3.0	0.4	18.2	10.8	..
평균가동률	79.7	81.1	80.5	80.6	83.4	81.9	..
실업률	3.7	3.5	3.3	3.0	3.0	3.0	..
실업자(만명)	88.7	82.7	78.4	71.9	73.3	73.3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3	0.02	0.03	0.04	..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2.2	2.1	2.3	3.0	3.5	3.6
수출(억달러, FOB)[2]	2,844.2	3,254.6	287.8	293.2	344.4	358.4	332.5
(증감률)	(12.0)	(14.4)	(12.3)	(-1.1)	(22.9)	(17.1)	(15.5)
수입(억달러, CIF)	2,612.4	3,093.8	275.2	271.4	326.5	337.1	341.1
(증감률)	(16.4)	(18.4)	(13.8)	(-1.8)	(27.4)	(25.9)	(24.0)
경상수지(억달러)	149.8	60.9	1.5	23.0	24.6	17.5	..
외환보유액(억달러)	2,103.9	2,389.6	2,389.6	2,572.9	2,601.4	2,619.3	2,622.2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1,879	2,634	..	..	..	..	..

1) 한국은행 2007년 12월 3일자 '200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